<2024-11>

주간 사우디 서부지역 주요 동향(2024.3.29.-4.4.)

2024.4.4.(목), 주젯다총영사관

1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 피격 관련 OIC, MWL 비난성명 (4.3)

■ 이슬람협력기구(OIC)는 금번 공격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, 외교단의 불가침성 보호에 대한 국제법과 관습 위반이라고 비난

● 무슬림세계연맹(MWL)도 금번 공격에 대해, 이유를 불문하고 국제법과 관습에 따라 보호받는 외교 및 민간시설 공격을 비난

2 3월 사우디 기가프로젝트 발주규모 감소 (4.3)

■ 중동경제전문지 MEED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, NEOM, Red Sea, Qiddiyah 등 사우디 기가 프로젝트 발주액은 3월 2.7억불로, 1월 발주액 56억불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2월 5.9억불 대비로도 절반에 불과

● 3월 발주 사업은 지역냉방(district cooling)시설(1.9억불)과 도로 인프라 2건(0.8억불) 등 3건이었고, 2023.11월 발주액은 9,600만불에 불과

● 동 현상은 사우디 내 프로젝트의 우선순위와 예산이 재검토중이라는 분석과 일치하며, 향후 수 개월의 동향을 관찰하면 이번 하락세가 장기 하락의 시작일지, 또는 건설경기의 순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지 판단할 근거가 될 것

3 메카 250만㎡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발표 (3.30)

■ 사우디 부동산 개발기업 Roshn은 메카 서쪽 진입로 인근에 17,000만명을 수용 가능한 복합용지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

● 총 250만㎡ 부지에 빌라 등 주택 4,149호를 건설하고 쇼핑몰, 상업지구, 사무지구 등을 조성할 예정

4 알울라 왕립위원회, 중국 허난성 문화재청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(4.2)

■ 사우디 관영언론 SPA 보도에 따르면, 알울라 왕립위원회는 문화재 보존 및 사-

중 파트너십에 기반한 국제협력 강화를 목표로 중국 허난성 문화재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

- 허난성은 중국에서 3번째로 큰 성으로 인구는 1억명에 달하며, 금번 파트너십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, 연구, 인재육성, 관광 및 문화교류 등의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한편, 베이징 고궁박물원에서는 알울라 특별전 '알울라, 아라비아의 불가사의'가 4.11(목)까지 열리고 있으며, 현재까지 동 전시회 방문객은 25만명으로 추산
- 아울러, 알울라는 중국 안팎의 관광도시 간의 협력체인 '실크로드 관광도시 연맹'의 창립 회원으로, 아라비아 반도 지역의 여타 회원 도시들과 관광 발전을 위한 국제 포럼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할 예정

5 젯다 역사지구(Al-Balad) 건물 보존작업 완료 (3.29)

■ 사우디 문화부는 젯다 구시가지인 젯다 역사지구(Al-Balad)의 낡은 건물 56채에 대한 보존작업을 완료하였다고 발표

- 빈살만 왕세자의 사재 기부(약 1,300만불)와 VISION 2030 목표에 따라 젯다 등 사우디 각지에서 문화유산 보존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, 특히 젯다는 전통적 순례길로서 아랍과 이슬람의 역사를 담고 있는 도시. 끝.